

성균관대학교 정정현 Vol.33

未生 미생

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

정정현 33호는 여성이 대학 입학 후 결혼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시간 순에 따라 다룹니다. 이번 호 제목<미생未生>은 바둑용어입니다. 완생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바둑집이라면 미생은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형태의 바둑집을 이릅니다. 현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 미생입니다. 그 이야기를 이번 호를 통해 하려합니다.

성평등도서관 여기



GL00012376

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정정현 교지편집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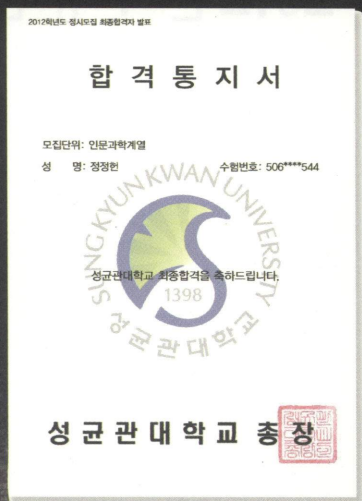
5.4
6점
3

00012376

00

Bridge_01

입학



살았다.

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대학 합격. 고등학생 시절동안 매일 나를 짓누르던 부담이 사라졌다. 매년 바뀐 담임선생님이지만 그들은 항상 내게 말했던 건 '수험 생활 3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라. 대학 입학하면 다 보상받을 거야.'라는 말이었고, 나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다. 이제야 난 죽은 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! 지금 나를 가득 채운 건 설렘과 두근거림이다. 이제껏 공부하느라 꾸미지 못 한 것까지 다 꾸미며 캠퍼스를 누비고, 고등학교